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오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깨어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여!

2006년 신임 서리집사 44명 추가 임명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순한 고난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오직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은총의 자녀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 다(빌 3:20).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매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행하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까?

발췌 2006년의 반이 지났습니 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곧 시작될 것이고, 약한 원수들의 공격은 더욱 기세 등등할 것입니 다(고후 11:14). 이 때 우리는 깨어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 다(고전 16:13). 오직 십자가만을 지향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 다(고전 2:2). 이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임명된 44명의 신임 서리집사는 참으로 기쁩니 다. 무엇보다도 외적인 조건과 모습이 아닌 그의 중심에서 불타오르는 보혈의 은총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였습니 다(골 1:23). 이제 아들은 삶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 전력을 투입하십니 다.

그런데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성심함만으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맑고 바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독 기도하십시오(마 14:38).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십시오(마 16:15).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 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2006년도 신임 서리집사(추가) 명단은 본지 7면 참조 바람.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시 51:4)

인간의 사악함과 불신앙을 향하여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각종 각양각의 죄와 악을 내어버리게 비추는 그 빛은 과연 무엇인가? 죄와 또 넘치는 악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만이 그들의 삶이고, 영원한 참된 행복인 것이다. 이들에게서 이것을 파피하는 것은 무엇인가? 존경하고 숭배하며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것이 진실로 살아 계신 하나님하신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명명하시는 그분이신가? 흠, 내가 그것으로 알고 만들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의 육구와 맞추어지는 그 신이 나의 신앙, 즉 우상은 아닌가!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여 죄를 말하고 있다. 특히 다윗이 자기의 죄를 말할 때에 그 죄는 실제로는 인간 사이에서 범하여진 죄였지만 다윗은 오직 주의 목전에서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물론 죄는 그 성질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매일 매일 신자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리들 지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롬 11:36). 이 하나님은 오늘날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분이시며, 신판자이시며,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으로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선언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 가며 살아 가는 것이 복된 일이다. 다윗이 범한 죄와 관련된 사람들은 여러 명이다. 물론 다윗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 일과 관련해 각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죄 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를 하나님과 관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인간의 눈에 띄어 발견되어서 해를 보게 되기 전까지는 별로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인간의 눈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된다.

“오직 주께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생각들은 이 한 가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위엄 안에 다 삼키어 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때에 다윗과 같이 “오 주여!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이 나온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명명하신 율례를 범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것이다(시 57:9).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였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

짓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의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향하여 죄를 범한 것이다(히 1:2,3). 그의 율례와 그의 완전하심과 그의 통치하심과 떨어질 수 없는 그 존재하심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만일 나의 죄악이 어떤 방법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되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서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죄악의 엄청난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과 불신앙을 향하여 하늘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노하심도 우리의 죄악보다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분노의 그 힘을 누가 알 수가 있을 말인가! 시편 기자는 주께만 있는 다른 어떤 것들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 능력과 위엄, 하나님과 불에 타는 듯한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다(시 90:1-2,11).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진노는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진노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두움과 두려움의 실재이며 환난 그 자체인 것이다. 죄와 죄인들을 향하여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죄이며 속성의 정결함이다(시 4:23-24 ; 히 12:28-29).

모든 정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잊이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빼앗길 수는 없다. 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죄가 있다는 말이다. 죄가 없다면 심판도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변칙이 있을 수도 없다. 이는 곧 불의 속성과도 같은 것이다. 불은 불에 가까이 와서 접촉되는 것을 원한다 원치 않든 태워 버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불에 닿으면 모두가 소멸된다. 여기에서 죄와 죄인은 불을 태우는 기름과 같은 물질에 불과하다. 우리의 주 하나님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 사이에 서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롬 3:23). 하나님, 그리스도와와 관계인 것이다(요 16:3 ; 롬 5:12). 인간들 사이에 상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롬 2:6).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신령이 되는 것이다(히 10:30, 31 ; 눅 12:5). 신자들은 참으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한다. 그 심판은 거룩하기 때문이요, 반드시 이루어지시기 때문이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글로써 표현할 수가 없다. 진리 그 자체인 것이다(마 1:1). 다윗의 죄에 대한 아름다운 회개의 고백이며 믿음의 간구이다(시 51:4). 신비의 간구함이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외아들 독생자의 집권이 오는 은혜의 자녀들에게 후속유지기를 원한다(창 22:7).

SINCERITY & CERTAINTY

(42) And He order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solemnly to testify that this is the One who has been appointed by God as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43) Of Him all the prophets bear witness that through His name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s forgiveness of sins. ... (47) Surely no one can refuse the water for these to be baptized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just as we did can he? (48) And he ordered them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n they asked him to stay on for a few days.

(Acts 10:42-48)

Today's Bible passage talks about salvation for Gentiles, a blessing designed by God for His chosen people. Cornelius was a God fearing Gentile; a centurion of the Italian cohort. He was a cautious and serious man who sought after truth. He looked at the Jewish religion and realized that their God was real. He and his entire household gave much alms to the Jewish people and prayed to God continually (Acts 10:1&2). Their worship to God was honest. They were moral people who practiced self-righteousness. They helped the poor and asked God to help and guide them. They were good people, but their sincerity could not save them, which is why an angel of God showed up. Cornelius and his household needed certainty. Their kind and loving efforts were not enough for salvation. The Bible tells us here that you need certainty, not sincerity, when you stand before Jesus Christ, the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What is certain?

The Word of God is certain. An angel of God came to Cornelius and told him, "Now dispatch some men to Joppa and send for a man named Simon, who is also called Peter" (Acts 10:5). Cornelius needed the gospel. He needed to hear the Word of God from Peter. Peter told him about Jesus Christ. He said, "Of Him all the prophets bear witness..." (v. 43). The whole Bible tells the story of Jesus. Jesus said,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it is these that bear witness of Me" (Jn. 5:39). He confirmed to all his disciples, "that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must be fulfilled" (Lk. 24:44). Cornelius and his household loved God, but their sincerity was not enough for eternal life. They needed the Word of God, which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certain. Peter also told Cornelius, "that through His name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have salvation (v. 43). There is no limitation or discrimination on who can believe. Jesus died for everyone's sin. This fact was a new truth for Peter. Prior to coming to Cornelius' home, Peter had a vision and the Holy Spirit told him, "Behold, three men are looking for you. But get up, go downstairs and accompany them without misgivings; arise for I have sent them Myself" (Acts 10:19&20). Jewish people were not to eat

particular unholy and unclean animals or associate and visit with foreigners. In Peter's vision a voice came to him three times and said, "What God has cleansed, no longer consider unholy" (Acts 10:15&16). God was teaching Peter not to call any man unholy or unclean (Acts 10:28). Whereas Peter thought God's salvation was directed toward the Jews, he now learned that God had everybody in mind, "All the circumcised believers who came with Peter were amazed, becaus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had been poured out on the Gentiles also" (v. 45).

The forgiveness of sins is certain. Peter told Cornelius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receives forgiveness of sins" (v. 43). Jesus Christ wipes all sin away. What a wonderful gospel message. Jesus truly forgives all your past sins. There is perfect forgiveness by faith. Now, Cornelius and his family had certain salvation, "And he ordered them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v. 48). They no longer had to worry or feel guilty about what they missed or did wrong because Jesus forgave all their mistakes, all their past sins. Romans 3:23&24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Jesus' death is why sin can be completely forgiven through faith. "But now having been freed from sin and enslaved to God, you derive your benefit, resulting in sanctification, and the outcome, eternal life.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2&23).

My dear friend, do you have certainty? Are you certain about your salvation? Many Christians are uncertain. They have doubts. Acts 16:31 clearly says,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Today's Christians claim to believe in Jesus, but think they need to do something more in order to receive salvation. Faith is the only thing needed. The Eternal Judge accepts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and that is certain! No matter how sincere a person you may be, without faith in Jesus Christ you are unsaved. Sincerity will not get you into heaven, but sincere faith will. I hope you are certain about the Word of God, Jesus Christ, and the forgiveness of sins. Your certainty, not sincerity, in these things will bring salvation. Amen. 🙏

다들 주일 설교

성실과 확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들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43)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44)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42~48)



김성관 목사

진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했던 신중하고 진지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보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행 10:1,2).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는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실천했던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친절과 사랑의 수고가 구원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닌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요?

말씀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읍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행 10:5). 고넬료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43절).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눅 24:44).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실함만으로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고넬료에게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43절). 믿는 자에게는 제한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진리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오기 전에 베드로는 한 환상을 보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러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행 10:19,20). 유대인들에게는 속되거나 깨끗하

지 않은 동물을 먹는 것과 이방인들을 방문하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 10:15,16).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행 10:28). 지금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나”(45절).

죄 사함을 확신하라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43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난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확실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48절).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실수한 것과 잘못 행한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실수와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3,24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는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2,2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31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을 받으려던 무엇인가를 좀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영원하신 재판장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에 대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닌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회당장 아이로 (막 5:35-43)

예수님 당시에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다. 특히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음을 알게 된다(눅 4:13-15, 18, 19).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온 반면에 회당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눅 4:28-33). 바로 이 회당에서의 중심적인 일을 관장하는 자가 회당장 아이로였다. 그런데 그는 다른 회당의 지도자들과 달랐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중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했다(막 5:22).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소나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소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막 5:23).

부모로서 가장 훌륭한 일을 행하였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눅 4:40, 41). 이것을 옆에서 보았던 회당장 아이로는 자신의 딸이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다. 마가복음 9장에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막 9:21, 22). 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을 것을 도와 주소서”(막 9:24). 이 믿음이 회당장 아이로에게 있었다.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구주라는 사실도 믿었다. 그는 부모로서 가장 훌륭한 일을 행하였다.

부모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회당장 아이로는 딸의 치료를 간구한다(막 5:23). 이 모습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가나안 여인을 떠오르게 한다. 그녀는 자부받은 바나나 죽었다. 더군다나 딸마저도 귀신 들린 자부받은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였다. “주 나의 딸이 죽었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내 딸이 옹호하 귀신 들렸기이다”(마 15:22).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마 15:23, 25, 27). 그녀는 부모로서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녀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마 15:28).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그녀의 딸은 고침을 받았다. 회당장 아이로와 가나안 여인은 부모로서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 자녀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보다는 학원에 보내고 말씀보다는 과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부모로서 우리

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모토(motto)가 되길 바란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아이로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회당장 아이로는 부모로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였지만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다. 그의 딸이 죽은 것이다(막 5:35). 그러나 죽음의 소식 앞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막 5:36). 그간 아이로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이 모습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참 신자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치명적인 시련이 닥쳐왔다. 이 점을 우리는 유해에서 보아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항상 치명적인 시련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충혼 안에 있어야 한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조금씩 하지 말자(눅 8:47, 48).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넘칠 것이다.

그리스도의 손길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은 죽었다. 이미 모든 장례 절차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다(막 5:38). 사람들은 회당장 아이로에게 이미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까지 하였다(눅 8:49).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막 5:50).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막 5:39). 이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아이로만 데리고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다(막 5:40).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이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금”(막 5:41). 그리스도의 손길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었다(막 5:42). 주변 사람들은 매우 놀랐으니 예수님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경계하셨다(막 5:43). 그리스도의 손길은 죽은 자도 살리는 참 능력이 있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회당장 아이로처럼 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리잡고 있는가? 올바르게 살며, 존경과 명예만을 받으려고 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진실로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순종하자.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 한다면 십자가를 달고 원수 갚아 주신 용사 더욱 믿어 하신다. 부끄러움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랴”(찬 514장). 아멘.

복음의 은총으로 순종과 인내를 깨닫는 중등 2부



김규석 (장로, 중등 2부장)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으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며 인간의 삶이 가는 태도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올바른 관계를 교육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을 역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등 2부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대들의 최대의 자량이 될 수 있도록 4가지 교육 목표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는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혼돈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위대한 일들에 감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 뜻을 따르는 신령한 예배의 정착을 위해 교육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교회의 빛과 바침에 따라 단기신교에 적극 참여하자”입니다. 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와 해외까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먼저 학생들 개인 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고 생활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교사, 학생, 1인 1명씩 태신자를 작정하여 중등 2부를 배가시키자”입니다. 신앙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56명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교사 자신의 내적 성장을 통하여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성경 읽기의 생활화로 그리스도를 알아 가자”입니다. 교회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매일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훈련이 생활화되고 정착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 가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늘 공허하여 자기 정체성을 잃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등 2부는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오직 보혈의 은총으로 풍성한 선생님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수련회(8월 10, 11일)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며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들이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선교(7월 31일~8월 5일)를 계획하여 7개 팀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등 2부의 교육과정을 마치는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한 순종과 인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련 중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철저한 자기부인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영광 돌리는 은총의 자녀로 바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천국 일꾼이 중등 2부를 통해서 양성되도록 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우선 순위로 정하니!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선교를 하기 위해 막연하게 기도 하였지만 사실 나의 형편상 선교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형편보다는 주님의 일을 우선 순위로 정하고 나니 선교를 결심할 수 있었다. 나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역사 속에 나도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이었겠는가! 이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갔다.

하루는 공원으로 전도를 나갔는데 대부분이 가족들이었지만 불람 청소년들도 많이 나와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지통에 버리거나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였다. 이처럼 전도를 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때때로 춥고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떠올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매 순간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자기를 부인하였고 선교지에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졌다. 솔직히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은 없었지만 선교를 하는 동안 문득 문득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 쓸모 없는 무지한 나도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 이처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모든 우선권을 두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황경빈(집사, 1교구)

할머니가 고백한 믿음

어느 마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고 다고 하면서 전도지를 잘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도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그 때 할머니가 갑자기 자신이 읽어 보겠노라고 말씀하셔서 그만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도 잘 보이지 않으시면서 전도지를 끝까지 읽고 열정기도까지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할머니는 계속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앞을 잘 볼 수 있음에도 한 때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저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계속된 사역에서 만난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홍기훈(집사, 9교구)

예수? 구원자 예수!

가파른 산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들의 생활은 정말 참담했다.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그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 그들은 우리의 어눌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같이 전도지를 따라 읽으면서 "예수" 하고 되풀이 했다. '우리도 저들의 영혼이 불쌍한데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을 이곳까지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그곳의 무더운 날씨도 주변의 악조건도 우리의 걸음을 막지는 못했다.

전도지를 따라 읽고 찬송도 따라부르는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자들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뿌리내리길 간절히 기도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되어 있던 영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차올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우리는 이제 그곳을 떠나왔지만 전도지를 받아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홍정호(집사, 18교구)

순종하여 받은 은혜

강렬한 햇빛과의 싸움이 오늘도 시작되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자"를 세 번씩 외치고 사역지를 향하여 떠났다. 움직이는 차 속에서 부르는 찬양의 열기는 더욱 뜨겁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지를 기대하며 차창 뒤로 밀려나는 농촌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는 대원들의 눈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며 욕심 없는 삶을 누리고 있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며 감사할 조건들이 그렇게도 많았지만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부끄러웠다. 우리네 삶과 너무 다른 그들이 불쌍한 것은 주위 환경의 열악함도, 할벗음과 굶주림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였다.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안타까울 때는 한국말로 하며 성령님께 통역을 구했다. 간절히 기도하며 등골 사이에 흐르는 땀이 땀인지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어느 가정에 나이가 지긋하신 아저씨는 성경책을 내보이면서 "나도 예수 믿고 매일 성경책을 읽는다"고 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또한 꼭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하던 여학생에게 성경책을 주며 기도하던 모습, "이편"으로 함께 하던 팀원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리라 믿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순종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아주 많이 감사할 뿐이다.

김순임(집사, 소년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1일(화) ~ 7월 18일(화)	대학부 20팀	전계식
7월 11일(화) ~ 7월 18일(화)	대학부 21팀	이계인
7월 11일(화) ~ 7월 18일(화)	대학부 23팀	배준식
7월 11일(화) ~ 7월 20일(목)	대학부 35팀	윤선한
7월 12일(수) ~ 7월 19일(수)	2교구 8지역	이상해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26팀	신광철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27팀	유종석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29팀	박덕양
7월 12일(수) ~ 7월 20일(목)	대학부 32팀	윤석민
7월 13일(목) ~ 7월 21일(금)	12교구 3지역	최경하
7월 14일(금) ~ 7월 22일(토)	청년1부 6팀	김신국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4일(화) ~ 7월 11일(화)	대학부 30팀	강만수
7월 5일(수) ~ 7월 13일(목)	대학부 31팀	장승규
7월 7일(금) ~ 7월 14일(금)	대학부 28팀	권오준
7월 7일(금) ~ 7월 14일(금)	대학부 25팀	문연식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 처음에는 사택에 대한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을 지나는 게 즐겁지 않았고 지루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너그러우신 예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생활 곳곳에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현경)

♥ 결혼을 앞두고 아내가 될 사람을 교회로,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면서 함께 새신자부에 등록하게 되었고 1년이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주님께 기도하여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게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명진)

♥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교회에 와서는 맘이 매우 편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니 모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일상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었겠습니다. (박태규)

♥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시오. (소미섭)

♥ 사랑의 어둔 그늘에서 예수님의 은총으로 저를 불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늘 불안했던 마음이 요즘엔 말쑥과 기도와 찬송으로 평안한 기쁨이 넘치며, 모든 것을 내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 때 예수님께서 평안과 축복 주심을 몸소 체험하며 밤새에 감사한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제 남은 일 평생 주 안에서 늘 십자가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김현아)

♥ 언제 도록 신앙인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일에 쫓겨 있습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교회와 믿음을 지날 때마다 '나도 교회 다시 다녀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세상에 매달려서 살기보다 예수님께 매달려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미자)

♥ 저를 새롭게 빚어 주신 토기장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때의 염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가족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신령히 6장 5,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전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희순)

(정라 편집실)

저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전철을 탈 때면 오늘은 또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 전도지를 내밀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의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을 때면 저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그만 할까 하는 유혹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여 잡자고 있는 아픔과 결로 다가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더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참되하다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저 사람은 지고 있는 사람이니 나와 관계가 없다고 내버려 두었다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는 말들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도하는 일에 저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변금순(권사, 16교구)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애인아, 그 필통 어디서 샀니? 너무 예쁘다." "아, 이 필통? 생일 때 선물 받았어." "너무 부럽다. 나도 사고 싶은데 선물을 준 친구한테 어디서 샀는지 물어 봐 줄래?"

작년 여름, 생일에 저는 친구에게서 예쁜 필통을 선물 받았습니다. 꼭 지갑처럼 생긴 필통이었습니. 손잡이 줄도 있는

데 하얀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겉에는 하트 무늬가 예쁘게 그려진 문종색 필통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필통을 준 아이에게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가 예쁜 것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 샀는지 친구에게 물어보고 얼마한 세 달

과 초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멋있는 걸 갖고 있으면 그것을 본 사람은 갖고 싶어합니다. 또 자기가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물건을 자랑한 적도 있고, 친구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별로 자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고마운 예수님은 저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말해 주지 않았습니. 생각에 보니 참 창송합니다. 예수님도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알려 주겠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예수님도 참 좋아하시겠지요!

이해인(유년부)

2006년 서리집사 추가 임명자

교 구	남	여
1	마종현(2000-0443) 이규찬(89-120) 이은재(88-233) 정운택(85-519) 정춘기(2005-0159)	이유미(95-1661) 정경옥(2004-0020) 최순업(2003-0236) 임은혜(2005-0159)
2	김인식(85-793) 이승철(84-696)	서영이(92-1097) 신란희(91-692) 이민영(2002-0272) 진화원(2004-0106) 최근민(2003-0021)
5		장운숙(99-1171)
6	박계형(84-630) 정인섭(2001-0155) 함형준(88-143)	김양숙(2001-0155)
7	김명국(2004-0522)	강지혜(96-540) 김명화(94-421) 나흥희(2004-0522) 윤지희(92-1321) 임남빈(2004-0594)
12		김수자(92-247) 김영희(2004-0305) 안희경(3766)
13	전일수(79-492)	
14	노수태(94-533)	
16		이복희(94-1581) 임영완(83-550) 함은주(99-215)
17	김연성(2003-0079)	도지숙(2003-0079) 임종현(1809)
18	안승균(4409)	한 진(79-446)
19	신용섭(2004-0545)	윤보라(2002-0183) 이문희(2001-0179) 한다경(89-1189)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깊이 깊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금요찬양 시간이면 어김없이 부르는 찬양이다. 선교를 떠나는 성도들을 위해 온 교인이 두 손 모아 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인 내가 등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된다. 얼마 전에 우리 구역에 새 식구가 왔다. 새 구역 식구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런 분이 믿는 예수라면 자기도 믿어 보고 싶어서 동료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신앙과 믿음이 생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참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우리 작은 불을 꺼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해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선교를 갔을 때의 일이다. 농촌 마을에서 축호 전도를 할 때 만난 한 여인은 눈망울만 보아도 겁에 질려 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와의 접촉을 피하는 그녀에게 영접기도를 시키고 돌아서 골목길을 나오면서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했다. 긴 골목길을 거의 다 나설 무렵 급한 목소리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한 그녀는 '성경책을 줄 수 있느냐?'고 했다. 그녀의 남편은 술만 먹으면 그녀를 때렸고, 남편에게 맞고 나면 죽고 싶어지는데 그때마다 읽어 보겠노라는 것이었다. 우린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무리 많구나" 지금도 가끔 그녀의 겁 먹은 눈망울이 생각난다. 그럴 때마다 난 주님이 그녀의 등대가 되어 성난 물결 속에서 그녀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나의 등불 들어우려 거친 바다 비취라 빛을 찾아 해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주님, 나의 일상이 거친 바다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실수투성이고 모순덩어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증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용숙(집사, 아멘 찬양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65	엘르킨	19	외선부	이인숙(18)
2066	굴나라	19	외선부	김은숙(7)
2067	미적열지	19	외선부	여신자(7)
2068	김경숙	19	청년1부	이미주(4)
2069	엄형섭	7	청년2부	최이자(7)
2070	박경자	3	청년1부	정동식(2)
2071	남우정	1	청년1부	김경숙(1)
2072	박해순	19	외선부	김영옥(4)
2073	김영미	19	청년1부	최봉순(7)
2074	김동환	6	대학부	이진규(6)
2075	손말순	8	소말부	이보영(17)
2076	김철규	1	교역자	
2077	이현준	1	사모	
2078	최정운	19	청년1부	한용택(6)
2079	문사랑	19	대학부	안연식(4)
2080	송현숙	12	청년3부	은영선(13)
2081	송민영	19	에버다부	신명식(16)
2082	송진연	17	청년2부	김혜원(5)
2083	정연숙	9	청년2부	홍금성(5)
2084	자여울	19	외선부	
2085	카피러	19	외선부	
2086	정혜진	19	청년1부	양근식(1)
2087	송경희	8	청년3부	왕남희(19)
2088	임영아	19	청년1부	유하나(19)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유종대	정현원	박민기	류영	김복희	김복희
12.0	6.0	12.0	12.0	12.0	12.0
이국진	안국영	나광영	정건호	고광현	정민호
12.0	12.0	12.0	12.0	12.0	12.0
위건장	김익환	장훈	임태민	안재용	
14.0	14.0	7.0	7.0	6.0	
최훈철	하준철	안지현	장승준	안재용	
12.0	12.0	12.0	12.0	12.0	
이성진	조구호	최광규	이재영	이준호	
12.0	12.0	12.0	12.0	12.0	
이동부	김준희	윤수원	황창진	이준호	
8.0	8.0	9.0	12.0	12.0	
김태석	김정훈	유재진	강병구	전성원	
12.0	12.0	12.0	12.0	12.0	
김철규					
이현도사					
안종수	윤인숙	한영준	김지현	홍순재	
12.0	12.0	12.0	12.0	12.0	
이옥주	김갑자	안태순	김정연	김정민	
12.0	12.0	12.0	12.0	14.0	
최훈철	전순희	김영준	김갑자	김정희	
12.0	12.0	12.0	12.0	12.0	
이국진	A 류희의	한성일	임태민	주	
12.0	12.0	12.0	12.0	12.0	
유미자	이복순B	강호숙	전희희	이복희	
8.0	3.0	12.0	2.0	12.0	
전영림	김정국	김정국			
12.0	12.0	12.0			
전영림	김정국	김정국			
12.0	12.0	12.0			

- 중환의 모든 장사자들이 전신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에 드리 복음을 전 하소서.
- ③ 2006년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④ 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 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주케 돌아올 수 있도록 은사를 주소서.
- 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총을 회개하고 위애 풍성히 내려 주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믿을 안에서 살게 하소서.
- ⑦ 2월 목표의 하나님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순환복지단이 십자가 복음으로 은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